

시촌마을 배추모종 심기 봉사활동

- 연말 김장행사 위해 배추모종 파종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완)에 따르면 KR봉사단은 8월 30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충남 논산시 황산빌 참살이 마을을 찾아 배추모종 파종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KR봉사단은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배추모종 파종, 사랑의 텃밭 손질, 농기구 점검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KR봉사단은 '사랑의 김장나눔 재료부터 김치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올 봄부터 고추 모종심기 및 지주대 세우기, 감자 수확, 고추따기 일손돕기 등 농촌 봉사활동을 네 차례 이상 실시한 바 있다.

경영지원실은 직접 재배한 친환경 재료로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11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가족봉사단 농촌문화체험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결연마을과 교류를 강화해 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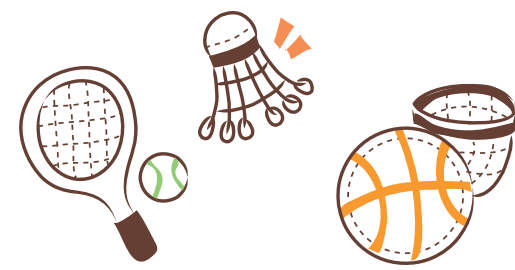
철도 여유부지 공동 활용으로 1석 3조 효과

- 국유재산관리 효율화, 지역 주민 편의 향상, 수익 창출 -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수인선 월곶역 인근 고가 하부 철도부지 1만9000㎡를 시흥시와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시흥시가 올해 안으로 배드민턴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2014년에는 공원을 조성하게 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공단은 매년 약 2000만원의 사용료로 받아 10년간 2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부 관계자는 철도부지 공동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고, 철도부지의 무단점유, 쓰레기 투기 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철도부지를 활용해 지역발전과 공단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항선 신창역 여객통로 추가설치로 혼잡 해결

- 출퇴근·등하교시 이용 혼잡 완화 및 편의 제고 -



충청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출퇴근 및 등하교시간 장항선 신창역의 혼잡을 줄이기 위한 승강장 연장과 계단 및 여객통로를 추가하는 공사를 8월 30일 완공했다.

신창역 인근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과 순천대학교 등 2개 대학의 학생수는 약 1만4000여 명으로, 등하교시 일시에 300여 명이 에스컬레이터 1대와 엘리베이터 1대를 이용하는 등 혼잡에 따른 불편과 안전문제를 야기했다.

본부는 올해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승강장을 연장하는 계단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신창역 대합실을 통하지 않고 역광장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2개의 출입구를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신창역 이용객의 민원 해결과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사로 신창역을 이용하는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혼잡도와 안전사고 예방이 완전하게 해결했다"며, "앞으로도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개량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수도권본부,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동상 수상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에 따르면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진행된 '2013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6시그마 부분에서 건설/기술처 건축/설비PM '역사사랑' 분임조(조장 안승화 차장)가 대통령상 동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9회째를 맞이하는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북도가 공동 개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대회로, '역사사랑' 분임조는 '철도역사 시설규모 재산정'을 통한 이용자 편의공간 확보'라는 주제로 전국 각 시·도에서 예선과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과한 6시그마 부분 16개 분임조와 경쟁했다.

'역사사랑' 분임조는 '이용자 중심의 철도건설 구축'이라는 공단의 전사전략을 과제선정 배경으로 그동안 과다 설계된 정거장 역무 공간을 재산정 해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을 이용자에게 다시 제공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한편, '역사사랑'은 지난 5월 22일 서울시 품질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수도권본부 안승화 기자)

게시판

주요뉴스 ('13.9.2~'13.9.8)

- 횡단한 '별간불 출발'... 최악 참사 날 뻔 (중앙일보08)
- 無·無·無... 무능한 코레일 (한국일보01)
- 코레일 '탈선 후폭풍' 거셀 듯 (서울신문09)
- 정부 춘천~속초 철도 예산 20억원 반영 (강원일보01)
- 월곶-안양-판교 복선전철 건설 촉구 (인천일보03)
- 건설철 채감경기 3개월 만에 반등 (매일경제27)
- 공기업 절반 하반기 신규채용 없다 (매일경제28)
- 의왕 부곡동 '철도특구' 지정 (경인일보37)
- 국민 가슴 쓸어내리게 한 대규모 3중 총출 (중앙일보34)
- 대구역 열차 사고는 대형 참사 경고 신호화 (조선일보35)
- 대구驛 사고 열차, 자체제동장치도 먹통이었다 (조선일보12)
- 민영화 갈등·기강 해이...코레일 '예고된 탈선' (국민일보15)
- 철도 운영·시설 분리 '거꾸로 달린 9년' (경향신문20)
- 코레일, 5조원대 '용산 소송' 당하나 (경향신문20)
- 경인국철 전철 '지하화' 추진 경기·인천 등 5개 지자체 맞손 (경인일보37)
- 교통카드 한 장으로 11월부터 전국 다니다 (동아일보02)
- 진주지역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 윤곽 (국제신문11)
- 명품 대전역 신축 오늘 디자인 협의 (중도일보02)
- 고개 숙인 코레일 (서울신문09)
- 고위공무원 2명 6.2%... 멀고먼 여성인재 육성 (동아일보01)
- '불황' 건설업계 취업문 더 좁아졌네 (서울신문17)
- 복합역사 역사권개발 기록제되나 (중도일보01)
- 철도공단 충청본부, 대전 동구 복지정책과 성공 전달 (충청투데이22)
- 여주~원주鐵 내년 상반기 추진 청신호 (강원일보02)
- "신분당선 용산~강남 경제성 없다" (한국경제04)
- 수서발 KTX 운영사, 저비용 고효율 회사로 키운다 (파이낸셜04)
- 전경련 "SOC 투자확대 등 시급" (서울신문18)
- 대전역사 개관사업 'ახ추중·후복합시설'로 가닥 (국민일보10)
- 동해남부선 울산 27.7km 11월 착공 (중앙일보R04)
- 동남권 광역전철망 구축 등 제시 (국제신문11)
- 철도폐선부지, 신개념 '파크'으로 변신 (동아일보16)
- '복선전철 지하화 조속히 추진해 달라' (강원일보22)
- '용산사업' 사실상 종지부? 코레일, 1兆 주코 부지 회수 (조선일보B03)
- 공공공사 최저가격체제 '종합심사제'로 개편 (경인일보06)
- 고용률 70% 달성 총력... 모든 부처 성적표 매긴다 (서울신문10)
-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571명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중앙일보B04)
- 국토부 신하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가속화 (파이낸셜05)
- 한국경제, 신용국 금융불안 비켜가나 (서울신문15)

막장지질조사(Face Mapping) 특별교육 시행

- 철도건설현장 터널공사 막장관찰 역량 강화 -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8월 30일 협력사 터널막장관찰 업무담당자 및 공사관리관 등 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건설현장의 터널공사 막장관찰 역량 강화를 위한 '막장지질조사(Face Mapping)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터널 구간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반 및 붕괴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문가 기술편역 박사는 암석의 기초지식, 막장관찰방법 등을 강의했다.

앞으로도 본부는 협력사 및 직원들이 현장업무에 적용 가능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철도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수도권본부 임병일 기자)

'업무방식 및 의식 개선을 위한 열린토론회' 개최

- 허상원 신호통신처장 필드로 변화와 개혁 추진 -

기술본부(본부장 임영록) 신호통신처는 8월 28일 '업무방식 및 의식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해 기존의 폐단을 버리고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토론회에서 허상원 신호통신처장은 최근 정부에서 개방과 소통, 공유, 협력을 위해 부처간 벽하물기와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처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부서 및 분야간 협조를 통해 변화를 추구할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신호통신처는 다양한 민원과 현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적극적인 해결 노력과 함께 긍정적 사고를 통해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기술본부 서정민 기자)



소통 위해 다 함께 Go! Go! Go!를 외치다

- 시설사업본부 전직원 간담회 시행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최성권)는 8월 22일 본부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조직내 소통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소통 슬로건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김지연 신입사원은 수평적 의사소통은 어려움이 없으나 수직적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다른 직원들도 동참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소통은 배려와 이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 항상 본부장실 문을 열어 놓고 있겠다. 업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업무 외적으로도 상의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본부장실에 들어오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한, 소통문화 정착을 위한 슬로건으로는 참석자 90% 이상이 찬성한 '듣Go! 생각하Go! 공감하Go!'가 선정되었는데, 이는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본부는 앞으로도 전직원이 소통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하간 수직적 소통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설사업본부 황재광 기자)

